

Russia–Central Asia relations

–Focusing on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AEU in 2015–*

Sang Nam Park**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ussia-Central Asia rela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EAEU in 2015 and forecast the future from a structural realism perspective. Bilateral relations have both elements of close cooperation and elements of conflict. Russia and Central Asia,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authoritarian alliance, also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in which they have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maintain the regime. Based on this, Russia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unify Central Asia. Central Asia also has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Russia for its survival, but at the same time,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void being subjugated to Russia again.

However, as China's power expands, Russia's relative weakness, and wariness toward Russia increases after the Ukraine War, the gap in bilateral relations is widening. In particular, as China's influence grows, Russia's nervousness also increases. This is why Putin visits Central Asia and holds active summit talks even during the war in Ukraine. If competi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surfac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nternational order in Central Asia will become unstable. However, it is still unlikely that the power of Russia and China will reverse in Central Asia. Above all, the security, historical,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Russia and Central Asia are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China to catch up with. Therefore, a weakening of Russia's influence compared to the past is inevitable, but its superiority is expected to continue.

If Russia breaks away from belligerence and transforms into an attractive cooperativ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E-mail: allo7@hanmail.net

partn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ilateral relations will take an upward turn again. However, it seems unlikely that such changes and innovations will occur under the Putin regime. Therefore, the biggest obstacle to realizing Putin's goal of reunifying Central Asia is Putin himself.

Keywords

Russia, Central Asia, Structural realism, Ukraine war, EAEU

러시아·중앙아시아 관계

-2015년 EAEU 창설 이후를 중심으로-*

박상남**

한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예측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이메일: allo7@hanmail.net

주제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구조적 현실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EAEU

I. 서론 : 중앙아에서 힘의 변화 가능성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이하 중앙아)에서 러시아가 쇠퇴하면서 힘의 균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국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소모적인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력은 쇠약해지는 반면 중국의 경제력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앙아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호전적인 푸틴(Vladimir Putin)정권에 대한 중앙아인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탈러시아 정서가 표면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러시아-중앙아 관계는 국제정치적 구조적 측면이나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양자관계는 전통적인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하다. 때문에 중앙아 국가들이 러시아를 대체할 다른 강대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특히 19세기 제정러시아와 소련을 거치면서 형성된 양자의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유대감은 1991년 분리 독립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법과 제도, 언어, 문화적 연계성과 유대감은 여전히 양자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이런 요인들은 러시아가 중앙아에서 전통적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성은 양자협력에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때론 러시아가 중앙아 국내외 정책에 개입하는 구실과 통로가 되기도 한다.

1991년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는 자국중심의 군사기구인 집단안보조약(Collective Security Treaty, 이하 CSTO)을 통해 중앙아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 푸틴은 시위진압 지원, 무기제공, 군사기지 설치와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중앙아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호해주고 반대급부를 요구해왔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중앙아에 에너지인프라 구축, 우주, 원자력, 농업개발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투자를 해왔다. 게다가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창설을 통해 중앙아를 자국 중심의 루블화 경제권에 통합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는 구 소련권을 묶는 단일경

제공동체인 EAEU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확장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러시아는 규모면에서 EU, 중국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통합노력에 중앙아 국가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AEU에 참여한 반면 러시아의 간섭을 우려하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다. 독립초기부터 중립국을 표방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예 러시아주도의 모든 다자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아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에 다시 예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등 러시아의 거듭된 군사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중앙아 국가들의 대러 경계심 고조가 반러시아 노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정학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앙아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협력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며 실리를 추구해왔다. 중앙아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친숙한 강대국이자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그동안 중앙아에서 유지되던 러시아 우위의 국제질서가 변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중앙아 양자관계의 협력요소와 갈등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약화되는 러시아 국력과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감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러·중관계의 변화가 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중앙아 국제질서 구조와 양자관계

구조적 현실주의는 상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나머지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Kissinger, 1957; 케네스 월츠, 박진영 역, 2000, pp.97-117). 즉 강대국들의 세력관계가 일극, 양극, 다극체제인지, 또한 이들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아니면 갈등적인지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냉전해체 이후 중앙아 국제질서를 보면 글로벌 차원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왔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중심의 일극체제가 형성되었지만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던 중앙아의 지역에서는 러시아 우위에 있는 미·중·러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박상남, 2013, pp.53-76). 소련이 소멸하였지만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월등한 1강, 미국과 중국이 2등을 형성하는 다극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중앙아를 지배했고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접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만큼은 당시 유일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압도했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세력이 급격하게 퇴조하면서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안보적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중국이 서진정책인 일대일로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앙아에서 미묘한 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적 진출이 확대되자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2015년 EAEU를 창설하며 견제에 나섰다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러시아가 제어하기 벅찰 만큼 중국의 세력팽창이 확산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2015년 EAEU 창설 이후 중앙아에서 러시아, 중국의 양강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중앙아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월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면서 상황은 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까운 미래에 러·중의 힘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2021년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중앙아 안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적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아프간과 적극 대화하고

중양아 국가들과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중양아 양자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중·러는 물론 러·중의 역학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최근 미·중·러 3국관계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뉴 노멀(New Normality)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있다(제성훈 & Lukonin, 2022, pp.229-258). 이러한 상황은 중양아 국제관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러시아-중양아 양자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4년 이후 중양아에서 형성되어 온 우호적인 '러·중 양극체제'는 역내 국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중양아 5개국이 활발한 양자, 다자협력을 전개하면서 독립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도 냉전붕괴 이후 이 지역에 형성된 러시아 우위 속에 미·중·러 다극체제 또는 러·중의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경쟁적 양자관계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유럽에서 미·러의 갈등적 양자관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과 대비되고 있다. 만약 러·중관계가 경쟁, 또는 갈등관계로 변화한다면 중양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양아, 동아시아, 유럽의 서로 다른 상황은 강대국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 국제질서양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러·중 밀월관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되었던 중양아 국제관계가 최근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장되면서 러시아의 우려도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적인 러·중관계도 중양아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의 힘의 변화가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와 경제적 확장을 통해 거침없이 중양아로 진출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호적인 러·중이 중양아에서 이해충돌로 경쟁이 표면화 되거나 갈등관계로 전환한다면 역내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진영으로 분열되면서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과거 유럽 국가들의 '후견 피 후견 관계'(이영수 & 박상남, 2023, pp.83-114)가 1차 대전의 발미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양아 역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러시아가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주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5년 중국의 중앙아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세프(Leonid Gusev)는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한다(The Importance of Central Asia for Russia's Foreign Policy, 2019). 그는 푸틴집권 이후 러시아의 대 중앙아 정책의 3가지 핵심 목표를 첫째 군사, 안보, 기술협력촉진, 두 번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협력, 세 번째 EAEU 확장으로 설명한다. 그의 주장처럼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를 군사, 안보, 경제적으로 자국의 영향권에 묶어 두기 위해 CSTO와 EAEU를 적극 활용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카시모프(Sher Khashimov)와 잔다예바(Raushan Zhandayeva)는 러시아가 여전히 중앙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 안보적으로 강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정치,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프로젝트, 인프라, 자본투자, 노동이주와 임금송금 등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중앙아를 장악해왔다고 주장한다.¹⁾ 사실 소련시절 형성된 지역간 경제적 분업구조로 인해 러시아와 중앙아의 경제적 가치사슬과 공급망은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정책에 영향을 미친 루킨(Alexander Lukin)은 러시아가 구소련권 국가들을 재통합하려면 전통적인 ‘슬라브 민족주의’를 버리고 다양한 유라시아 민족들을 포용하는 개념인 ‘유라시아 파트너십(Eurasian Partnership)’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Lukin, 2018, pp.1-14). 러시아가 구소련영토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여러 민족들을 규합할 수 있는 다민족주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는 러시아가 정치·군사·경제뿐만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영역에서도 중앙아와 구 소련권을 다시 규합하기 위한 통합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 왔음을 보여준다. 소련시절 다양한 민족

1) 2019년 기준 러시아에 이주한 중앙아 노동자는 약 950만 명이며 이들이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중앙아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송금경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유지에 활용하고 있다.(Khashimov et al., 2020)

들을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이 사라진 이후 그 공백을 ‘유리시아 파트너십’으로 대체함으로써 러시아와 중앙아의 통합필요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이다. 러시아가 구 소련권 국가들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어 내는데 성공한다면 국력, 인구, 시장규모면에서 서방, 중국과 대등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루킨의 이러한 주장은 구 소련권 국가들을 다시 속국으로 만드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급격한 세력약화를 경험했던 러시아가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이 자국주도의 CSTO와 EAEU를 통해 구 소련권 국가들을 재결속시키는 것도 바로 소련제국의 부활을 의미한다(박상남, 2022, pp.139-140; 박상남, 2005, pp.297-322).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구 소련권 국가들을 다시 묶어 내려하는 푸틴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을 저지하려는 다급함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 전략문제 연구소 부소장인 쿠쉬쿰바예프(Sanat Kushkumbayev)은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카자흐스탄에도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다. 긴 국경선을 가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정치, 안보, 경제,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유로 들고 있다(Kazakh strategist: The Eurasian union is only about economic relations, 2017). 그의 이런 언급은 러시아가 성공하고 안정되어야 자신들도 이롭다는 운명공동체적인 시각이 담겨있다. 그의 언명은 오랜 기간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구성원이었던 러시아-중앙아 관계가 외부의 시각보다 각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이 꾸준하게 중앙아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실반(kristiina silvan)은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쇠퇴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silvan, 2021). 경제규모면에서 중·러 양국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말리코프(Yuriy Malikov)는 중앙아 인구구조가 세대교체 되면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젊은이들은 러시아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국내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Malikov, 2019, pp.297-316). 러시아를 모방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부모 세대와는 독립적 노선을 선호하는 흐름이 젊은 세대들에서 형성되면서 모스크바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독립 이후 중앙아 젊은이들이 취업과 유학을 위해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러시아보다 매력적인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푸틴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앙아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호전성을 목격하면서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우마로프(Temur Umarov)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중앙아 국가들의 대러 경계심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중앙아 5개국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여전히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한다. 그는 중앙아 국가들이 현재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의존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러시아가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변화하지 않을 경우 영향력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마로프는 푸틴정권에서는 러시아가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Umarov, 2022). 푸틴이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러·중의 국력격차,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 등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인가?

III. 정치·안보관계

1. 러시아의 중앙아 재통합 노력

푸틴은 2000년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들과 정치, 군사,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 다자협력을 추진해왔다(박상남, 2013, pp.53-76). 특히 러시아는 다자협력을 통해 중앙아 국가들을 러시아 중심으로 묶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1992년 출범한 러시아 주도의 군사안보기구인 CSTO(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참여)를 통해 참여국들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제권을 강화해 왔다. CSTO는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안보문제, 테러, 조직범죄, 마약,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신속 대응군을 운영하고 무기지원, 장교양성, 군사기지운영, 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의 대 러시아 무기 의존도를 살펴보면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China's Expanding Military Education Diplomacy in Central Asia, 2021). 2015에서 2020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무기의 91%, 키르기스스탄 무기의 98%, 타지키스탄 무기의 88%가 러시아산이다. 이것은 이들3국의 무기, 군사운영 시스템이 러시아의존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중립국을 표방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가 12%로 터키산 41%, 중국산 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안보적으로 러시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산이 24%로 중국산 28% 보다 비중이 적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었던 결과가 이러한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 안보적 지위는 우월하다. 푸틴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서 발생한 국내 반정부시위에 자국 군대를 파견해 진압을 도우면서 이들 국가의 내정에도 개입해왔다.

또한 2001년 창설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이하 SCO)’²⁾는 중국과 함께 중앙아5개국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SCO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 관리하면서 역내 국경갈등과 군비경

쟁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역시 SCO에 가입함으로써 냉전 시기 소련의 영토였던 중앙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아 4개국도 다자협의체인 SCO를 통해 강국인 러시아, 중국과 표면적으로나마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중앙아 국가들은 끌려가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SCO는 역내 국가들의 국경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테러방지, 마약밀매,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에도 기여하였다.

푸틴의 중앙아 통합노력은 2015년 EAEU 창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러시아는 EAEU가 중국과 EU에 맞설 수 있는 구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이는 EAEU가 미국·서방경제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 러시아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EAEU는 현재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푸틴의 집념에도 불구하고 중앙아 5개국은 러시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주도의 다자협력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В Украине тоже так начиналось»: призывы переименовать районы Бишкека и гнев Москвы, 2022).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은 러시아가 이란 공격드론을 비밀리에 수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키르기스스탄은 군사 망원경 수입, 카자흐스탄은 가전제품 수입의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죄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Putin Stirs European Worry on Home Appliance Imports Stripped for Arms, 2022). 이는 중앙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예속되는 것은 경계하지만 여전히 협력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중앙아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들 권위주의 통치자들의 국내정치적 요구를 적극

2)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러시아,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4개국으로 시작하여 점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확대됨.

수용하고 있다(Орозайым Нарматова и Ильгиз Шаменов, 2022). 예를 들어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야당인 이슬람 부흥당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또한 러시아로 망명한 키르기스스탄 야당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구금 또는 추방하고 있다(Umarov, 2022). 이들 모두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통치자들이 러시아에 요청한 사안들로 장기집권, 권력세습, 부패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고 제지하기 위함이다. 러시아가 중앙아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도 양자가 권위주의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중앙아 권위주의 통치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아 집권자들은 푸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중앙아 국내외 정책에 개입해왔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협력도 하고 경계심도 갖는 중앙아 국가들의 입장을 어느 한 면만 보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편 강고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종신집권으로 가고 있는 푸틴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서구민주주의 확산을 경계한다. 푸틴은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집권을 제도화 하는 등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해왔다(김시현&장세호, 2023, pp.7-43).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 2014년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 이들 나라에서 꽃피우던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이 서구민주주의가 동유럽을 넘어 구소련영토로 확산될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푸틴은 2021년 벨라루스 시민들의 부정투표 항의시위, 2022년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물가폭등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개입은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요청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나라에서 시민혁명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는 푸틴의 목적에 부합했다(박상남, 2022, p. 141).

2. 러시아의 호전성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통합노력에 대한 중앙아 5개국의 입장은 각자 다르다. 독립 초기부터 중립국을 표방한 투르크메니스탄은 CSTO, SCO, EAEU에 모두 미 가입 상태이다.³⁾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CSTO에 가입했으나

탈퇴했고 러시아의 거듭된 권유에도 EAEU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Zhunisbek 2019, pp.39-50). 반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이들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있다(After the Kazakhstan crisis, China will reassess its influence in Central Asia, 2022). 타지키스탄은 CSTO, SCO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EAEU가입은 미루고 있다. 이렇듯 중앙아 국가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국가별로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국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앙아의 약소국 타지키스탄도 러시아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3개국은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독자 노선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듯 중앙아 국가들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입장은 다르지만 러시아에 다시 예속되지 않으려는 목표는 공통적이다.

러시아의 집요한 설득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EAEU 가입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다(Uzbekistan Joins Online Eurasian Economic Union Meeting as an Observer, 2020). 중앙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이후 러시아의 신뢰와 국력이 하락하면서 협력파트너로서 매력력이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AEU는 회원국들의 이견, 미미한 통합 시너지효과,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등으로 가입해 봐야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EAEU 가입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앙아 소국인 타지키스탄 역시 러시아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 EAEU에 가입하지 않을 태세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이 EAEU를 끌어들이 서방의 제재에 대항하려 했던 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Kazakhstan: Please Don't 'Politicize' the Eurasian Economic Union, 2021). 카자흐스탄은 EAEU가 러시아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순수한 경제협력에 국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상남, 2015, pp.79-102). EAEU의 역할범위

3) 1995년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영구중립국으로 인정받았다.

를 벗어나는 반 서방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Kazakh strategist: The Eurasian union is only about economic relations, 2017). 러시아 주도의 CSTO도 과거에 비해 명성을 잃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졸전을 거듭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CSTO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전망이다(Umarov, 2022).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부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푸틴의 호전적인 무력행사는 중앙아 국가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중앙아 국가들은 푸틴의 제국주의적 군사행동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Uzbekistan responds to crisis in Kazakhstan, 2022).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인 2022년 10월 자국영토에서 예정된 러시아 주도의 CSTO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크 대통령도 2022년 12월 푸틴과의 회담을 전격 연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편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에도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중앙아 국가들의 이러한 반응은 푸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도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중앙아 국가들은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에도 부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서방의 허가 없이 러시아의 금융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중앙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다. 대신 이들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터키 등 투르크 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우위가 고조되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앙아 국가들이 역내 협력과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4) Абдулазиз Камиллов: «Мы не признали Луганскую и Донецкую народные республики» <https://kun.uz/ru/news/2022/03/17/abdulaziz-kamilov-my-ne-priznayem-donetsk-i-lugansk-otdelny-mi-respublikami>, <https://www.kommersant.ru/doc/1017558>(검색일: 2023.07.03.).

보이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은 그동안 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역내 갈등을 해소하면서 힘을 모으려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권좌에 오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크 대통령이 역내갈등 해소와 협력추진에 적극적이다.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 2022년 8월 6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합의한 국경분쟁 해결방안이 2023년 6월 효력을 발생했다. 양국은 1991년 독립 이후 2,330km에 달하는 국경 중에서 일정구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바기스(Bagys) 마을을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에 양보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역시 무력충돌까지 벌였던 1,378km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교류강화에 합의하였다.(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여곡절 끝에 국경 획정 합의, 2023) 이러한 움직임은 역내 단결과 협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응하려는 중앙아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중앙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 중국, 터키, 한국 등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중앙아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를 반러시아 정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보다는 중앙아가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지원했다가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이 경우 러시아가 중앙아 국가들이 입을 손실을 보상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푸틴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전쟁지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Can Russia and China Edge the United States Out of Kazakhstan?, 2022)

이처럼 푸틴이 공을 들여온 구 소련권 재통합노력은 내정간섭과 예측을 우려하는 중앙아 국가들의 우려로 일부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있다. 중앙아 5개국은 실리추구를 위한 등거리외교로 푸틴의 참여요구를 피해가고 있다.(Kazakh Unrest Seen Boosting Russia at US Expense, 2022)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한 중앙아 국가들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전장에서 나타난 러시아군의 비효율성과 허약함은 역내 안보의 수호자로서의 러시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력이 약화된 러시아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와 협

력루트를 다원화하면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 하는 것도 이러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양자 협력의 미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중앙아는 대체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주도국인 러시아의 행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표 1] 중앙아 5개국의 역내 다자기구 참가현황

	CSTO	SCO	EAEU
카자흐스탄	O	O	O
우즈베키스탄	탈퇴(2012.06.28.)	O	옵저버
투르크메니스탄	X	X	X
타지키스탄	O	O	X
키르기스스탄	O	O	O

IV. 경제 · 문화관계

1. 경제협력의 득과 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와 밀접한 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복지, 언어적 연계성과 협력관계를 가져왔다.(Kazakhstan Rejects Proposal to Join Russian Sanctions-Busting Plans, 2021) 19세기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중앙아를 지배한 역사적 산물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시기 형성된 지역 간 분업체계는 지금도 양자를 연결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며 많은 분야에서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우주, 원자력, 농업개발, 우즈베키스탄과는 120억 달러 투자사업 추진, 군 장교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 교역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최대 투자국이며 군사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중앙아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silvan, 2021).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자의 경제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Umarova, 2022). 한때 징병을 피해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중앙아로 피신하면서 양자의 교역이 증가했었다. 2022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교역은 10%, 우즈베키스탄 40%, 타지키스탄 22%, 키르기스스탄 40%, 투르크메니스탄 45%로 급성장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상품교역 등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송금도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상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앙아를 통해 전자제품을 비롯한 서방의 금수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이후 대체 공급지로 부상한 중앙아에서 나타나는 일시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중앙아를 외부와 교역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밀접했던 러시아-중앙아의 경제, 사회문화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다(silvan, 2021). 중앙아 국가들의 대러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러시아 국력도 전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초조해진 러시아는 중앙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푸틴은 중앙아 5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각국 지도자들과 50회 이상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⁶⁾ 이 밖에도 많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기업가들이 중앙아를 방문하면서 비즈니스협력에

5) 보다 자세한 관련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http://government.ru/news/47164/>, <https://www.kommersant.ru/doc/5632180>,
(검색일: 2023.09.09).

<https://tass.ru/ekonomika/16232089>, <https://tass.ru/ekonomika/16232089>,
(검색일: 2023.09.09).

<https://turkmenportal.com/blog/48217/tovarooborot-turkmenistana-i-rf-v-pervom-kvartale-2022-goda-vyros-do-1711-mln>, (검색일:2023.7.10.)

<https://finexpertiza.ru/press-service/researches/2022/trud-migr-max/>(검색일:2023.8.12.)

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ips>(검색일: 2023.07.05.).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를 자국 경제와 더욱 밀착시키기 위해 수년전부터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국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해왔다.(우즈베키스탄, 주변국과 국경 구획 마무리에 박차, 2022) 이를 통해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시행된 서방의 대러 제재와 고립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려 한다. 한편 푸틴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중앙아 국가들을 압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푸틴은 카자흐스탄 석유수출의 80%를 담당하는 러시아 송유관을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Слишком нейтральный союзник. Ждет ли Казахстан судьба Украины, 2022). 이렇듯 러시아는 중앙아 국가들에게 강은 전략을 구사하지만 전쟁을 지원하라고 강요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다 중앙아 국가들의 반발이나 동맹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흔들리는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1991년 독립이후에도 중앙아는 러시아의 법률과 제도를 모방하고 러시아 언론시청도 개방하였다. 양자는 급작스럽게 분리 독립한 이후에도 제도, 문화, 언론분야에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유사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인적,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아 내부의 긴밀한 정보수집하거나 내정간섭,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법과 제도, 러시아어는 아직도 양자관계를 익숙하게 이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생 전인 2021년 한 여론조사에서 중앙아인들은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러시아를 가장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지목했다(Blackwood, 2021). 이처럼 러시아는 중앙아에서 미국, 중국, 터키, EU 등이 갖지 못한 사회문화적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에 넘볼 수 없는 러시아의 역사,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상황은 변하여 중앙아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키르기스스탄인 70%, 카자흐스탄인 55%, 우즈베키스탄 30%가 자국의 경제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Yunis Sharifli, 2022).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반전시위가 벌어졌고 언론의 예능프로에서도 러시아 연예인 퇴출 움직임이 나타났다. 제2의 모국어역할을 하던 러시아어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푸틴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을 차단하였다 (Роскомнадзор требует от Власти удалить несколько новостей о войне в Украине, 2022). 이에 반발한 카자흐스탄 역시 인종적 증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극우성향 TV의 자국 내 방송을 중지시켰다(박은하, 2023). 또한 중앙아 일부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려는 탈 식민지화 움직임도 공론화되고 있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이다.

소련 시대의 향수를 간직한 러시아-중앙아 엘리트들은 독립 이후에도 끈끈한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중앙아 정치 엘리트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감독과 승인을 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Рустам Эмомали вылетел в Москву, 2023). 그러나 인구학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소련 시대 형성된 러시아-중앙아의 인적네트워크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중앙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은 소련통치 시대와 러시아어를 잘 모른다. 독립 이후에 성장하고 태어난 이들은 더 이상 러시아를 모범국가로 여기지도 않는다. 중앙아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원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친서방주의, 사회 불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Malikov, 2019, pp. 297-316). 그러나 이들은 서구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 경제발전, 복지개선 등을 원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과거처럼 러시아에 예속되기 보다는 독립 국가로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적 자급자족 능력 향상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 중앙아 정권들은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라는 국내적 압력을 받고 있다. 중앙아 엘리트들은 젊은 세대의 변화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푸틴의 보호에서 홀로설 자신도 없다. 그래서 중앙아 정권들은 소련식 거리이름이나 지명을 바꾸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면서 자국 내 반러시아 정서를 달래고 있다(В Украине тоже так начиналось, 2022).

V.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협력요소와 갈등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예측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벌어지고 그 공백의 한 부분을 중국이 채우고 있는 면도 있다. 특히 푸틴의 지정학적 야심이 배경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자관계를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가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능력을 갖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도 중앙아인들의 탈러시아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전쟁비용 증가로 러시아의 국력과 미래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 점도 양자협력의 매력을 떨어트린다.

중·러 양국의 국력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도 주요 변수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소모가 큰 반면 중국은 서방이 철수한 러시아 시장을 헐값에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앙아 국가들은 역내 힘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실리추구를 위한 등거리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력대상국을 다양

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틈을 비집고 중앙아에 진출한 중국은 입지를 강화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활발한 회담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 중국 견제용이다. 중앙아 국가들의 향상된 자립능력도 탈러시아 행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통합노력은 물론 중국, 터키, EU, 한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이다.

그러나 중앙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러·중의 힘이 역전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러시아가 붕괴하거나 여러 나라도 분리되어 약화되는 예외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다. 중앙아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대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아에서 지정학적 구조, 전통적인 정치,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연계성이라는 역사적 자산을 가진 러시아를 중국이나 주변 강대국이 대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관계가 경제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 안보,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아 국가들이 탈러시아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중앙아에서 러시아 우위의 국제질서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중앙아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기득권에 도전할 경우 푸틴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21년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 권위주의정권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역내 국가들의 후견국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 정권들이 국내반대세력, 극단주의, 분리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장기집권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아 정권들이 자식과 측근들에게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것도 권위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에 가능했다. 헌법을 개정해 사실상 종신대통령이 된 푸틴 역시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호해야 한다.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와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아에서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이전보다

약화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구조적으로 러·중이 갈등관계로 전환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러·중관계의 힘의 변화가 중앙아 국제질서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러시아-중앙아의 양자관계는 과거에 비해 의존성은 약화되겠지만 우호적인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푸틴 정권은 앞으로도 중앙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중앙아 국가들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독자노선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러시아-중앙아 양자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또 다른 변수는 역내 강자인 러시아의 정책변화여부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을 버리고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한다면 구 소련권에서 영향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푸틴이 지정학적 야심을 수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푸틴 자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앙아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 박상남(2022). *중앙아시아 초원문명의 오늘*. 다해출판사
- 케네스 월츠. 박건영 역.(2000).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 김시현&장세호(2023).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분석과대안*. 제7권1호
- 박상남(2005).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중앙아시아(1991-2004). *역사문화연구*. 제 23호
- _____(2013). 신 현실주의의 ‘체계이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중앙아시아 관계: 정치, 안보, 경제공동체 건설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4호
- _____(2015). 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 방안: EEU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Vol. 38.
- 이영수&박상남.(2023).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발칸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과대안*. 제7권1호
- 박은하(2023년 8월 18일), 카자흐스탄, 자국 내 러시아 선전 방송 차단 “증오 조장”.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308181552001#c2b> (검색일: 2023.09.11.)
- EMERiCs(2023년 2월 10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여곡절 끝에 국경 획정 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0&systemcode=04&brdetsNo=342681> (검색일: 2023.09.09.).
- Kissinger, H.(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Malikov, Y.(2019). *Modern Central Asia*. Lexington Books
- Lukin, A.(2018). “Russian-Chinese cooperation in Central Asia and the idea of Greater Eurasia”. *India quarterly: 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5(1).
- Silvan, K.(2021). “Russian policy towards central asia 30 years after the

- collapse of the soviet-union.” *FIIA BRIEFING PAPER* 322.
- Zhunisbek, A.(2019). “Russia’s policy in Central Asia during the Putin Era.” *Eurasian Research Journal* 1(2).
- Blackwood, M. A.(September 24, 2021). “Central Asi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sgp.fas.org/crs/row/R46924.pdf> (검색일:2023.7.13.)
- Denisov, I.(2022). “After the Kazakhstan crisis, China will reassess its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01/after-kazakhstan-crisis-china-will-reassess-its-influence-in-central-asia/> (검색일:2023.7.22.)
- Eurasianet.(June 7, 2021). Kazakhstan Rejects Proposal to Join Russian Sanctions-Busting Plans. *Eurasianet*.
<https://eurasianet.org/kazakhstan-rejects-proposal-to-join-russian-sanctions-busting-plans> (검색일: 2023.09.15.).
- Gotev, G.(September 18, 2017). Kazakh strategist: The Eurasian union is only about economic relations. *Euractiv*.
<https://www.euractiv.com/section/central-asia/interview/kazakh-strategist-the-eurasian-union-is-only-about-economic-relations/> (검색일: 2023.9.10.)
- Gusev, L.(Oct 2, 2019). The Importance of Central Asia for Russia’s Foreign Policy. *ISPI*.
<https://www.ispionline.it/en/publication/importance-central-asia-russias-foreign-policy-24071> (검색일: 2023.09.22.)
- Imamova, N.(January 12, 2022). Kazakh Unrest Seen Boosting Russia at US Expense. *Voice of America*.
<https://www.voanews.com/a/kazakh-unrest-seen-boosting-russia-at-us-expense/6394402.html> (검색일: 2023.09.02.)
- Khashimov, S., Zhandayeva, R., Nuranova, K., & Aisarina Z.(DECEMBER 15, 2020). Introducing the Central Asia Migration Tracker. *Oxus Society for Central Asian Affairs*,

- <https://oxussociety.org/introducing-the-central-asia-migration-tracker/> (검색일: 2023.08.013.)
- Marat, E.(April 19, 2021). China's Expanding Military Education Diplomacy in Central Asia. *PONARS Eurasia*.
<https://www.ponarseurasia.org/chinas-expanding-military-education-diplomacy-in-central-asia/> (검색일: 2023.09.02.)
- Nardelli, A., Baschuk, B., & Champion, M.(October 29, 2022). Putin Stirs European Worry on Home Appliance Imports Stripped for Arms.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29/putin-stirs-european-worry-on-home-appliance-imports-stripped-for-arms?leadSource=verify%20wall&sref=QmOxnLFz> (검색일:2023.7.22.)
- Putz, C.(June 09, 2021). "Kazakhstan: Please Don't 'Politicize' the Eurasian Economic Union."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06/kazakhstan-please-dont-politicize-the-eurasian-economic-union/> (검색일: 2023.07.08.)
- Sharifli, Y., Chia-Lin Kao, and Derbishova, B.(October 24, 2022). Russia's War in Ukraine and Its Impact on Central Asi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10/russias-war-in-ukraine-and-its-impact-on-central-asia/> (검색일: 2023.09.14.)
- Umarov, T.(December 23, 2022)"Russia and Central Asia: Never Closer, or Drifting Apar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88698> (검색일: 2023.08.18.)
- Umida Hashimova.(December 14, 2020). Uzbekistan Joins Online Eurasian Economic Union Meeting as an Observer.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0/12/uzbekistan-joins-online-eurasian-economic-union-meeting-as-an-observer/> (검색일: 2023.09.02.)
- _____(August 10, 2020). Will Tajikistan Ever Jo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0/08/will-tajikistan-ever-join-the-eurasian-economy>

- c-union/ (검색일: 2023.07.03.)
 _____ (January 18, 2022). Uzbekistan responds to crisis in Kazakhstan.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01/uzbekistan-reacts-to-the-crisis-in-kazakhstan/>
 (검색일:2023.7.27.)
- _____ (January 18, 2022). Uzbekistan Reacts to the Crisis in Kazakhstan.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01/uzbekistan-reacts-to-the-crisis-in-kazakhstan/>
 (검색일: 2023.09.10.).
- Yunis Sharifli.(October 24, 2022)“Russia’s War in Ukraine and Its Impact on Central Asi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10/russias-war-in-ukraine-and-its-impact-on-central-asia/>(검색일:2023.8.10.)
- 제성훈&Lukonin, S. A. (2023).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в АТР: Пекин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Вашингтоном, *분석과 대안* 제7권1호
- Абдулазиз Камиллов: «Мы не признали Луганскую и Донецкую народные республики».
<https://kun.uz/ru/news/2022/03/17/abdulaziz-kamilov-my-ne-priznayem-donetsk-i-lugansk-otdelnymi-respublikami>(검색일: 2023.09.10.).
- Встреча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асым-Жомартом Токаевым.
<http://government.ru/news/47164/>(검색일: 2023.09.15.).
- Қазақстандық банктер «МИР» жүйесінің төлем карталары бойынша операцияларды жүзеге асыруға рұқсат ал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ardfm/press/news/details/473187?lang=k30>(검색일: 2023.09.11.).
- Кыргызстан отменил учения ОДКБ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https://kaktus.media/doc/468580_kyrgyzstan_otmenil_ycheniia_odkb_na_svoey_territorii.html, (검색일: 2023.09.11.).

<https://www.gazeta.uz/ru/2022/12/08/kg-visit/>. (검색일: 2023.09.11.)

Количество въехавших в Россию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достигло шестилетнего максимума.

<https://finexpertiza.ru/press-service/researches/2022/trud-migr-max/> (검색일:2023.8.12.)

Поездка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Саммит Россия – КНДР.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ips> (검색일: 2023.09.14.)

Роскомнадзор требует от Власти удалить несколько новостей о войне в Украине – Анали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ет-журнал Власть

<https://vlast.kz/novosti/53007-roskomnadzor-trebuets-ot-vlasti-udalit-neskolko-novostej-o-vojne-v-ukraine.html> (검색일:2023.8.12.).

Рустам Эмомали вылетел в Москву | Новости Таджикистана ASIA-Plus (asiaplustj.info)(검색일:2023.8.12.)

Смежники подвели.

<https://www.kommersant.ru/doc/1017558>(검색일: 2023.09.10.).

Товaroоборот России и Узбекистана вырос почти на 40% в 2022 год.

<https://www.kommersant.ru/doc/5632180>. (검색일:2023.09.15.).

Товaroоборот России и Таджикистана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вырос более чем на 22%.

<https://tass.ru/ekonomika/16232089>,

<https://tass.ru/ekonomika/16232089> (검색일: 2023.09.14.).

Товaroоборот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РФ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2 года вырос до \$171,1 млн.

<https://turkmenportal.com/blog/48217/tovarooborot-turkmenistana-i-rf-v-pervom-kvartale-2022-goda-vyros-do-1711-mln>. (검색일: 2023.09.14.).

Umarov, T(April 08, 2022). Слишком нейтральный союзник. Ждет ли Казахстан судьба Украины.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87625> (검색일:2023.8.18.)

«В Украине тоже так начиналось»: призывы переименовать районы Бишкека и гнев Москвы (azattyq.org),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планируют

закреть школы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бучения? | Фактчек (factcheck.kz)

Manuscript: Sept 15, 2023; Review completed: Oct 1, 2023; Accepted: Oct 18, 2023